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십니까? 이사에 입후보한 한정미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KLPGA 정회원이 되는 것,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는 것 그리고 명문 골프장 회원이 되어 즐기는 골프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여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나니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KLPGA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마운 협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사에 출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회원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로서 일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제,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 예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원님들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협회 일에 이사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논의사항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해 사전에 공부하지 않고 이사회나 간담회에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해 왔으며, 협회 일을 고민하다가 뜬 눈으로
새벽을 맞기도 했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KLPGA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모든 회원이 함께 힘을 모아
407억의 발전기금을 보유하는 꿈같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년 협회 운영비도 160억 원에 달합니다. 총 회원 수는 2천 6백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 투어는 발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회원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원의 입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투명하게 협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의원의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는 앞으로도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투명하고 희망찬 협회가 되도록 정직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18일

후보 한 정미

